

STS 6요인 기질검사

Six-factor Temperament Scale

연구개발 | 최은실, 윤진영, 최해훈, 김수아

영·유아용 결과보고서

아동 정보

아동 이름	sample
검사 일	2025년 11월 20일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2023년 11월 02일

작성자 정보

작성자 이름	
출생연도	년

아동과의 관계 부 모 기타 ()



STS 6요인 기질검사 소개

2025/11/20 Page 2

sample

남

만 02세00개월

기질(temperament)이란?

타고난 성향이나 성품으로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고 일생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질의 표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성격의 토대가 됩니다.

본 검사는 최신 기질 이론에 기반하여 6개의 기질 요인
활동성, 조심성, 긍정정서, 부정정서, 사회적 민감성, 의도적 조절로 측정합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구성



각 요인별 수준에 따른 행동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음	높음
활동성	활동량이 적은, 얌전한, 소근육 신체 활동을 선호하는, 차분한	활동량이 많은, 열정적인, 대근육 신체 활동을 선호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조심성	도전적인, 적극적인, 겁이 없는, 적응이 빠른, 대담한, 주도적인, 모험심이 강한	조심성이 많은, 수줍어 하는, 안전을 중시하는, 실수가 적은, 소극적인, 경계심이 많은
긍정정서	긍정정서 표현이 적은, 못마땅한, 시큰둥한, 애정표현이 적은, 쉽게 만족하지 않는	낙관적인, 유쾌한, 행복한, 긍정적인, 만족스러운
부정정서	안정된, 침착한, 이완된, 참을성이 있는	예민한, 민감한, 감정에 충실한, 기분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 민감성	개인적인, 타인의 영향을 덜 받는, 독립적인, 외로움을 덜 탄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주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함께하는 놀이를 선호하는, 공감적인, 사교적인
의도적 조절	관심사가 다양한, 욕심이 없는, 현실과 타협하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인내심이 강한, 꾸준히 노력하는, 끈기 있는, 주의집중력이 높은, 부지런한

STS 6요인 기질검사 결과

2025/11/20 Page 3

s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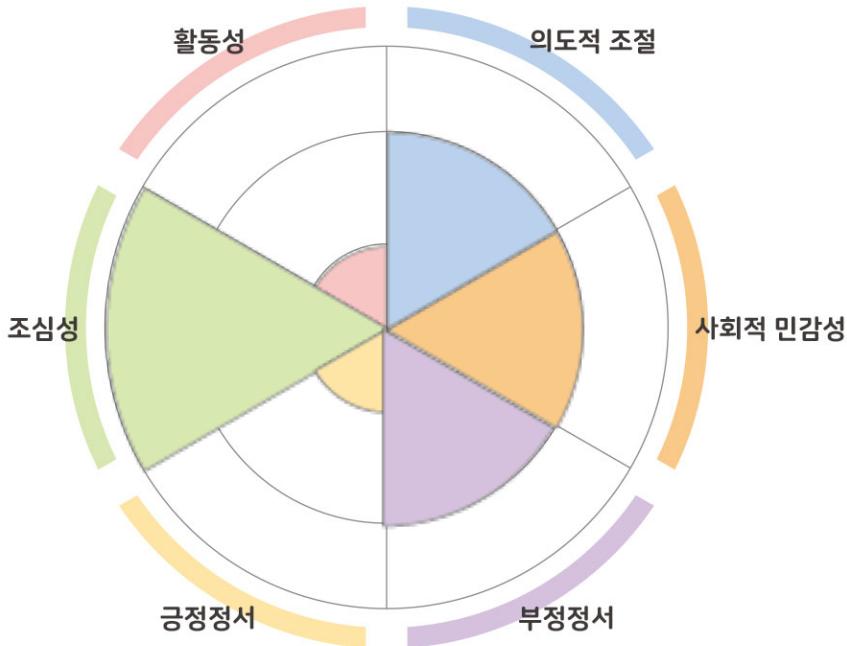
남

만 02세00개월

아동의 기질검사 결과



- 기질이란 아동이 타고나는 생물학적 반응/행동의 경향성으로 측정 결과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 아래의 결과를 활용하여 아동의 고유한 특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인명	수준	원점수	T점수	백분위
활동성	낮음	15	30.9	4.4
조심성	높음	36	59.4	83.9
긍정정서	낮음	18	32.9	6.2
부정정서	중간	19	55	73.3
사회적 민감성	중간	21	54.6	72.7
의도적 조절	중간	25	48.1	44.7

점수에 대한 이해



• 수준

기질 수준에 대한 해석 및 코칭은 최신의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해석과 코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각 기질 요인은 3개의 수준(높음, 중간, 낮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T점수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 T점수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인 표준점수로써 50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위의 점수는 평균점보다 높고, 아래의 점수는 평균점보다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 백분위

전체 집단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한 개인의 점수가 아래에서부터 몇 번째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 80은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자기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79명, 높은 사람이 20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수준	낮음	중간	높음
T점수 범위	45미만	45~55	55초과

STS 6요인 기질검사 결과

2025/11/20 Page 4

sample

남

만 02세00개월

1. 활동성

sample 아동의 활동성 수준은 '낮음'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편입니다. 활동량이나 움직임이 많지 않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양전하다는 평을 듣곤 합니다. 또한 행동이 느린 편으로, 위험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신나는 놀이를 하는 경우에도 부산스럽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활동성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다소 소극적이고 답답한 아이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아이는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양전하고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키우기 쉬운 아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고 때로는 모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발달 수준 및 흥미에 맞는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준비하고 참여해 보도록 권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음] 수준의 활동성을 보이는 아이를 위한 양육 Tip

① 아이를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자의 조급함이나 재촉은 아이를 압박하여 더욱 움츠러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탐색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② 아이가 머뭇거리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양육자가 먼저 도전하고 시도하는 모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③ 아이가 혼자서도 조용히 잘 논다고 내버려두기보다는 아동 발달 수준 및 흥미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해 보도록 권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발한 탐색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소근육, 대근육, 언어, 사회성, 인지 등이 발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놀이감을 제공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놀이 뿐만 아니라 산책, 놀이터, 문화센터 등과 같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가면서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④ 많은 활동이나 경험, 또는 (고된) 스케줄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세심히 관찰하여 아이가 너무 지치지 않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STS 6요인 기질검사 결과

2025/11/20 Page 5

sample

남

만 02세00개월

2. 조심성

sample 아동의 조심성 수준은 '높음' 수준입니다.

아이는 또래에 비해 조심성이 많고 신중한 편입니다. 따라서 무모하게 도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관찰력이 좋고 섬세하고 민감하여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변화나 사소한 자극도 쉽게 알아채곤 합니다. 새로운 상황이나 낯선 대상에 바로 다가가기보다 주의를 기울여 살피는 때가 많고, 정해진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 말을 잘 듣는 아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 과도한 불편감이나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행동은 위축되고 소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줍음과 경계심이 많아 환경에 대한 탐색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발달과 성장 측면에 필수적인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이의 조심성과 수줍음은 타고난 성향입니다. 양육자가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아이에 비해 편안해지는 데 약간 긴 시간이 필요할 뿐, 아이는 누구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경계심을 풀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음] 수준의 조심성을 보이는 아이를 위한 양육 Tip

① 아이의 성향이나 행동을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타고난 성향을 자꾸 평가하거나 비난하면 아이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조심스러운 모습에 대해 용기가 없다거나 겁쟁이라고 여기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충분히 준비되면 스스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② 아이는 처음 만나는 자극을 파악하고 안심하게 될 때까지 반응을 억제하고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장소, 사람, 음식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데 워밍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자극을 충분히 탐색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면 워밍업 후에는 누구보다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시간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③ 아이가 낯선 곳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는 아이를 안정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 발짝을 내딛어 새로운 것에 접근하거나 만져보려는 것과 같은 시도를 하면, 이를 충분히 칭찬해주세요. 양육자의 칭찬과 함께 아이의 자신감은 커져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시도와 도전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양육자가 먼저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에게 “여기는 안전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모델이 되어준다면 아이는 좀 더 빨리 경계심을 풀 수 있습니다.

⑤ 아이가 불편감이나 긴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호소할 때 “그게 뭐가 무서워~~”, “네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왜 너만 그러니..”라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구나.”, “무서웠구나.”라고 말해주며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수용해주세요. 감정을 충분히 수용해주면 아이는 공감 받았다고 느끼면서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나갈 수 있을 겁니다.

⑥ 낯설거나 새로운 자극이 스트레스가 되기는 하지만, 아이가 발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숙한 장소에 친숙한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편안해지면, 좀 더 어렵고 도전적인 것을 시도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결과

2025/11/20 Page 6

sample

남

만 02세00개월

3. 긍정정서

sample 아동의 긍정정서 수준은 '낮음' 수준입니다.

아이는 평소 긍정적 정서 표현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분명 기분이 좋을 만한 상황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양육자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답답함을 느끼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나 또래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긍정 정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용하고 침착한 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에서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이의 진짜 기분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아이다운 활력이나 생동감이 부족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아이의 작은 정서 표현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이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양육자를 보고 모방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정서 표현의 모델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낮음] 수준의 긍정정서를 보이는 아이를 위한 양육 Tip

① 아이의 마음을 양육자가 읽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경험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읽어줌으로써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양육자는 아이가 좋아할만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제공해줌으로써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동기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③ 아이가 자신이 느끼는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돋기 위해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가르치고, 혹은 동화책이나 영상을 보면서 등장인물의 기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평소 양육자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에 오니 정말 신난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함께 노니 정말 즐거웠어.”, “엄마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긍정적 감정이나 애정, 고마움 등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아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모델이 되어주는 것은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아이가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했을 때, 양육자는 아이의 변화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며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유치원에서 정말 신나는 일이 있었구나.”와 같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결과

2025/11/20 Page 7

sample

남

만 02세00개월

4. 부정정서

sample 아동의 부정정서 수준은 '중간' 수준입니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 적절한 수준입니다. 아이는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심하게 떼를 쓰거나 화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나 힘든 상황도 나름 잘 견디며, 적응력도 좋은 편입니다.

양육자는 부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조절해나가려는 노력을 격려해주며, 이러한 성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어야합니다.



[중간] 수준의 부정정서를 보이는 아이를 위한 양육 Tip

① 유아기에는 뇌에 정서조절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화가 나거나 속상해 있을 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육자의 진심 어린 이해와 공감은 아이의 정서조절 능력 발달에 기본 토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② 아이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정서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황의 변화나 일시적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양육자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적이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결과

2025/11/20 Page 8

sample

남

만 02세00개월

5. 사회적 민감성

sample 아동의 사회적 민감성 수준은 '중간' 수준입니다.

또래와 비교해볼 때 평균 수준의 사회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타인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자신에 대한 탐색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적절히 알아채고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마음 역시 잘 살피고 표현하는 편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혼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중간] 수준의 사회적 민감성을 보이는 아이를 위한 양육 Tip

① 사회적 민감성은 향후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하는 토대가 됩니다.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을 위해 주변의 사회적 단서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타인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예를 들어, “네가 저 아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질문해볼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의 관심과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착한 아이로 인정받기 위해 아이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③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육자가 모델이 되어주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공감반응이나 도움행동, 양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친사회적 행동으로 표현될 때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STS 6요인 기질검사 결과

2025/11/20 Page 9

sample

남

만 02세00개월

6. 의도적 조절

sample 아동의 의도적 조절 수준은 '중간' 수준입니다.

연령을 고려할 때 주의집중력이나 인내심이 적절한 수준입니다. 다만, 관심이나 흥미, 상황에 따라 집중력에 기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고 싶지 않은 활동이나 다소 어려운 과제를 해야 할 때 끝까지 지속하기보다 그만 두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집중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 주의가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나 선생님이 지켜봐주거나 칭찬을 해주면 아이는 하기 싫어하는것이나 어려운 것도 다시 집중하며 끝까지 해내곤 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는 양육자의 인정과 격려가 중요합니다. 또한, 주의집중력이나 인내심을 발달시켜갈 수 있는 적절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 수준의 의도적 조절을 보이는 아이를 위한 양육 Tip

① 아이는 현재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아동기에는 자기조절력이나 행동통제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산만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때로는 충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산만한 행동은 이 시기 아이의 자연스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다소 어렵거나 지루한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데 있어 양육자의 격려와 인정은 아이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중하고 있을 때, 그리고 힘들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낌없는 관심과 칭찬을 보여주세요.

③ 주의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아이를 무조건 앉아 있게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조금씩 주의집중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나 힘들이지 않고도 해낼 수 있는 과제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유형 해석

2025/11/20 Page 10

sample

남

만 02세00개월

동물 유형 해석이란?

기질 6요인 중 부정정서, 조심성, 의도적 조절의 조합으로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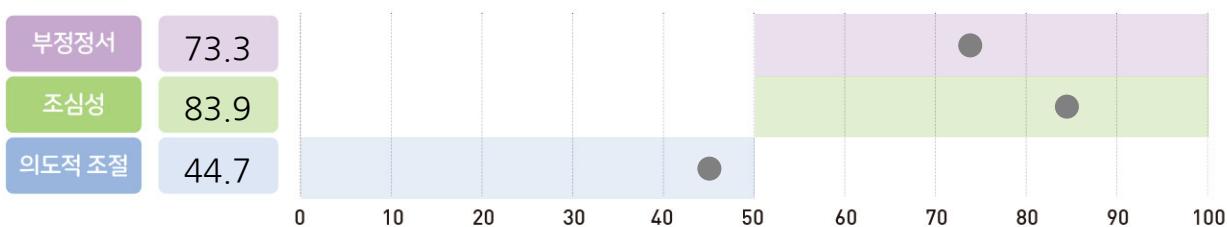
이 세 요인은 아동의 정서·행동 특성과 관련성이 높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 요인을 백분위 값 50을 기준으로 높음/낮음 수준으로 나누어 8개의 조합으로 제시하였으며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동물 유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각 유형별 아동의 성향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양육 코칭을 제공합니다.

아동의 동물 유형 결과

단위: 백분위



세 요인을 기반으로 분석한 아동의 동물 유형은 고양이 유형입니다.

아이는 솔직하고 개성이 강한 편이지만 경계심이 많아 놀라면 어디로튈지 모르는 고양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아이가 예민하고 까다로운 편이며,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유형 아이는...

-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솔직하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한 편입니다.
- 일상의 사소한 자극이나 작은 변화도 쉽게 알아챌 수 있어 눈치가 빠르고 섬세한 아이라는 평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에 얹매이기 보다 자유로우며 주관이 뚜렷한 편입니다.
- 조심성이나 경계심이 많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유의해 주세요!

- 아이는 예민하고 민감한 편으로, 별일 아닌 것에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불편감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는 것, 처음 해보는 놀이나 활동을 시도해야 되는 상황을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 어색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며, 이런 경우 양육자의 설득에도 쉽게 탐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 번 기분이 나빠지면 진정이 잘 안되어, 양육자가 달래주어도 기분이 풀어지기 어려우며 좋은 기분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소소하게 불평불만을 호소할 때가 잦으며, 드물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폭발하듯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유형 해석

2025/11/20 Page 11

sample

남

만 02세00개월

아동 유형에 맞는 양육 코칭

고양이 유형 아이에게는

양육자의 민감함과 배려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육자가 기분이나 충동 조절의 대행자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상치 못한 사람이나 상황, 자극에 맞닥뜨렸을 때 다른 아이에 비해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가 충분히 준비한 후 스스로 움직여 다가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가 힘들어 할 때는 아이의 감정을 잘 살펴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기분이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씩 정서를 표출하고 자기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건강한 감정표현 방식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의 부정적인 정서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경우, 주의를 전환하거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나 친구와 싸워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잠시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기분을 진정하게 할 수 있고, 놀이나 과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을 내면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다른 활동을 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용기를 내거나 적극성을 보이는 경우, 참을성이나 인내심을 발휘하는 경우, 혹은 상황에 맞게 기분을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경우, 충분히 칭찬해주어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이는 자신의 성향을 잘 살려 민감하고 섬세하면서도 자유롭고 솔직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 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최신의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는 **최신의 발달심리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 6가지를 기초로 개발되었습니다. 기질의 주요 이론과 연구들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안되는 6개 요인(활동성, 조심성, 긍정정서, 부정정서, 사회적 민감성, 의도적 조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신 규준을 제공합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는 최근 4년간 전국의 약 1만명의 영·유아 및 성인이 참여하여 검사가 개발되었습니다. 국내의 연구진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개발**하였으며, 각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세밀한 결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서적 기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정서적 기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서는 인간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 내적 차원, 대인관계적 상황, 적응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정서는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2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정서적 측면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돋습니다.

영·유아를 양육할 때 양육자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증명된 3개의 요인(부정정서, 조심성, 의도적 조절)을 조합하여 유형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성향은 하나로 설명하기 보다 2개 혹은 3개 조합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할 때 겉으로 들어나는 표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STS 6요인 기질검사에서는 아이의 기질 요인의 조합을 설명하고 **적절한 양육 코칭**을 제공하여 실제적으로 양육에 도움을 줍니다.



기질 육아란 무엇인가요?



Good Parenting(좋은 양육)을 위해서는 기질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아이의 기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의 기질을 정확히 이해하여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양육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질 육아입니다.

일상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엉뚱하다고 생각했던 아이의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기질은 태고난 성향이며 아이의 행동, 감정, 생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아이가 적응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질적 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주세요. 기질은 마주한 환경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기질 특성을 바탕으로 아이를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아이를 더욱 수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양육자 자신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아이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나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 나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아이와 마찰이 생기게 되면 화가 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질과 연관된 아이의 행동은 양육자의 의지에 따라 변화되기 어려우며, 양육자 자신의 태고난 기질 역시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비슷한 특성의 아이라도 어떤 가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집에서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와 양육자의 기질을 알게 되면 서로의 행동, 감정,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 성인용 기질검사를 통해 양육자의 기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소견]

